

불교언론의 중심·정론지

법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열린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언론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산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현장,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현장 등 현대불교신문은 불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또 불교적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잡, 다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현대불교신문은 인터넷 일간 뉴스뉴스를 통해 보다 많은 불교 정보를 불자들에게 한 발 앞서 전하고 있습니다.

창간 9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이 불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혼동하는 중생들에게 갈로수를 뿌려주는 법음이 되길 바라며, 불교 정론지로서 계속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길 모색하는 신문

운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불교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일반 언론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달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불법(佛法)이 널리 퍼져 사람마다 그를 믿고 실천할 때 사회는 보다 밝아지고 인간은 보다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평등사상을 사회와 대중 속에 구현하고 실현시켜나가는 데 노력을 해야 하며 차별과 편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불교 언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의 갈등과 분열 없이 미래지향적인 길을 모색해나가는 역할도 오늘의 불교 언론들이 수행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깔끔한 지면, 정제된 언어 돋보여

운덕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불교는 국내 최대의 종교이면서도 사회적 위상은 그에 버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단의 건강성을 유지하게 하는 자 기정화기능의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홍보 부족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불교의 바른 위상을 확보하는데 교계언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은 정보의 전달, 건전한 감시, 울골은 비판오라직 줄거움제공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 언론 역시 이 범주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간 9주년을 맞는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사명을 잊지 않고 바른 언론의 길을 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깔끔한 지면,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는 기자들의 노력,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보도 등 현대불교의 감정을 살려 더욱 성장하는 교계언론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파사현정의 책임 다하길

효암 대경사



진각종 총무원장

현대불교는 불교의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불교의 미래를 밝혀오는 데 정진하여 불법홍포와 불교의 대중화에 큰 성취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불법(佛法)이 바로서야 이 사회가 원칙과 정도(正道)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데는 먼저 인간의 심성을 밝히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대불교는 정론을 통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적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불교가 훌륭한 대안사상으로써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간다는 막중한 책무와 함께, 계속해서 다채롭고, 재밌는 기획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길 기원합니다.

차별화되고 특별한 소식 전하길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현대불교신문을 펴면 급변하는 한국 사회와 불교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한 사실과 보살행원의 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현대불교신문은 각고의 노력 끝에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세계화라는 사훈을 불자들 가슴속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불자들은 좀 더 차별화되고 특별한 불교소식을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들의 바람에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 신문은 현대불교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정신문화의 사회를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현대사회의 집합기가 되는 불교 정론이 되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깨어 있는 불자들의 눈·귀가 되어주세요

10월 15일 본지 창간9주년을 맞아 각 종단 대표자들과 카르마 렉서 쓰모 세계여성불자연합회장, 데이비드 채플 INEB 의장,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홍기삼 동국대 총장 등 국·내외 불교계 지도자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현대불교 창간 9주년 1994-2003 buddhanews.com



카르마 렉서 쓰모 세계여성불자연합회장

올바른 가치 전달해 주길

지난여름, 저는 2004년 6월에 열릴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준비를 위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현대불교가 발 빠르게 취재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불교는 그 전까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회에 대해서 한국불자들의 충분한 정보전달과 이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불교는 세계 불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장이 될 것입니다. 불교가 세계 문화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오늘날, 현대불교가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길 바랍니다.



초계 채영 명예 재일본 동아시아사학자

견해 나눌 수 있는 공간 소중

달라이 라마 성하를 대신해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온 세계의 평화와 공감대 형성에 대해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인류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불교처럼 불자들이 불법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도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채플 INEB 의장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 기대

INEB를 대표해 9년이라는 세월동안 신문 제작에 열정을 쏟아온 현대불교신문사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참여불교 세계대회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때 현대불교는 한국 불자들의 주요 활동을 신속하게 취재, 보도해 한국불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수행자들의 휴먼네트워크를 만들고 불자들의 신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홍기삼 동국대 총장

건강한 사회에 등불되길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 정보사회 구현과 포교에 매진함으로써 2,000만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부처님의 올바른 법과 지혜의 참 뜻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출판 여시아문과 책방 여시아문을 운영하고 불교 정보센터를 설립하여 불자들의 신심(信心) 함양과 신행활동을 지원하고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감로법문으로 이 사회를 밝혀 왔듯이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창의적 정신에 박수 보냅니다

우리 불교계의 든든한 지킴이 현대불교의 창간9주년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모든 회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 정진하여,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을 다양한 형태로 전하는데 큰 업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포교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가 앞으로도 교계 언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더욱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역할 성공적 수행

불교라는 종교는 물질과 외연을 집착하는 현대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화해와 관용의 종교입니다. 이 같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곳이 현대불교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언론사가 아홉 해를 거치며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진대, 현대불교는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을 버틸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가능성의 실현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양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영운 행원 문화재단 이사장

부처님 자비법을 전달에 노력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감을 느낍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간 때부터 신행지를 표방하며 힘차게 9년 동안 달려온 현대불교신문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한 시기입니다. 문화의 시대에 맞게 우리의 불교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좋은 기획기사를 많이 발굴해 독자들에게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려 주길 바랍니다.



박광서 참여불교재단 상임대표

참여불교 지평확대에 기여

달라이 라마, 틱낫한 등 이 시대의 위대한 참여불교 지도자들은 "개인의 깨달음은 사회의 깨달음을 위해 노력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 뿐 아니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 9년간 불자들에게 이러한 참여불교주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소개하는 등 참여불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현대불교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원장 대행 주지혜원

사부대중 일동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101-62 전화 : 사무처(031)470-3100 팩스(031)470-3116 홈페이지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평읍 무곡 4리 산 5-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064-727-3100 FAX: 064)727-0302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062-373-8801 FAX: 062)373-0174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053-767-3100 FAX: 053)765-1600
충북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055-342-6639 FAX: 055)345-9900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5-746-8163, 744-1321 FAX: 055)746-7825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042-532-1481 FAX: 042)526-089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동 18-99 TEL: 054-275-3163 FAX: 054)274-3503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043-259-5599 FAX: 043)255-5599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033-651-3003 FAX: 033)652-0281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055-643-0643 FAX: 055)643-0642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061-284-1771 FAX: 061)284-1770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054-555-8871 FAX: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U.S.A (미국 지원)
New York (뉴욕클러스터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1-718) 460-2019 / FAX: (1-718) 939-3974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1-703) 560-5166 / FAX: (1-703) 560-5566
Los Angeles (LA 지원) 1905 S.outh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1-323) 766-1316 / FAX: (1-323) 766-1916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1-847) 674-0811 / FAX: (1-847) 674-2280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1-416) 750-7943 / FAX: (1-416) 701-1359
ARGENTINA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ap. Fed. cp 1406, Rep. Argentina TEL: (54-11) 4921-9286 / FAX: (54-11) 4921-9286
Tucuman (투쿠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54-381) 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49-02131)969551 / FAX: (49-0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1-662) 391-0091 / FAX: (1-662) 381-8588